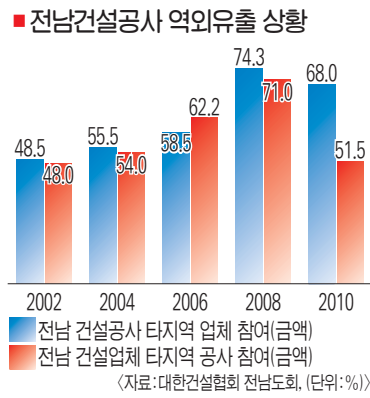


# 전남 건설공사 68% 외지업체가 공사

# 내년 전세가격 4% 상승...매매는 보합

**건설협회 전남도회 제주도서 회원연수**  
**기술제안입찰 도입 출혈경쟁 줄이고**  
**대·중소업체 공생 수주체계 구축 필요**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타지역 건설업체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6일 오후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원연수에서 김재영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은 “전남 소재 건설업체의 지역 내 공사 참여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32%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68%는 타지역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 공사금액이 역외로 유출됐다는 것이다.

역외 유출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남지역 공사에 대한 타지역 업체의 참여비중은 지난 2002년 48.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2004년 55.5%, 2006년 63.1%, 2007년 69.0%,

2008년 74.3%, 2009년 64.5%, 2010년 68.0%로 해마다 늘어 참여비중이 70% 수준에 급증했다.

반면, 전남 건설업체들이 타지역 공사에 참여한 비중은 2007년 71.2%에서 2008년 71.0%, 2009년 66.6%, 2010년 51.5%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역 건설공사는 타지역 업체에게 내주고 타지역 공사는 따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일감도 크게 떨어졌다.

전남지역 건설계와 실적은 지난 2008년 11조3690억원에 달했으나, 2010년 9조2720억원으로 2년 새 18.4%(2조970억원)가 줄어들었다. 특히 공공건설의 경우 2008년 4조7580억원에서 2009년 4조3330억원, 2010년

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협회 차원의 위기진단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사 스스로 시장 진입과 철수를 선택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제도적으로 과당 경쟁과 저가 투찰을 부추기는 최저가낙찰제 등 가격경쟁 위주의 낙찰제도를 철폐하고,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술제안입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중소 건설업체 간 수주 경쟁보다는 공사를 공동 수행하는 공생형 건설생산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위기의 건설업계를 살리는 길은 업계 스스로 혁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자발적으로 혁신 성과를 보이면 국민과 정부, NGO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협회 전남도회 연수는 김영구 회장을 비롯해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열렸다. /제주=박정욱기자 jvpark@

내년 주택 전세가격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고, 매매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국내 건설수주액은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서울 노원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201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어 내년 업계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전세가격은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의 감소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입주량 증가에 힘입어 올해(3.8% 추정)와 비슷한 4%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건설연은

예측했다.

2013년 전체 주택 준공물량은 올해 35만가구에서 5만가구 늘어난 4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아파트 준공물량은 올해 11만가구에서 내년 9만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매매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반된 흐름을 보일 것이 유력하다.

수도권은 공급 과잉과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당분간 약보합세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다소 회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최근 호황세

가 빠르게 둔화하는 추세여서 내년에 강보합세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은 ‘상저하고’, 지방 매매시장은 ‘상고하저’의 양상을 각각 보일 가능성이 크다.

2013년 건설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국내 수주가 올해보다 0.8% 감소한 110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건설연은 예상했다.

공공 수주는 올해보다 3.7% 늘겠지만 민간 수주는 2.9% 줄어 감소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 투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가로 올해보다는 1.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원 연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제주=박정욱기자 jvpark@

## 하이트진로 광주지사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광주지점(지점장 성동욱)은 7일 광주광역시청 문화광장에서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2012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봉사활동에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2012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는 재가저소득층 세대에 직접 담은 김치 1300통을 전달해 이웃사랑의 모범이 되고 자원봉사 참여 확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하이트진로는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참여 뿐 아니라 행사에 사용되는 앞치마 250여개를 제공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한결같이 자사 제품을 사랑해주는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했다.

한편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은 ‘참이슬 나눔 지역사랑 캠페인’ 일환으로 2010년 1월부터 광주전남지



역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해 조성 목표액 2억원 달성을 시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하이트진로(주)광주지점은 10차에 걸쳐 기탁된 1억7933만 5960원을 기탁했으며 2012년 12월 11차 조성금을 기탁

예정으로 누적 조성금 2억원을 달성하게 된다. 조성된 사랑기금은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지역 결식아동 및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 금호타이어 에코윙 S 저탄소제품 인증

금호타이어(대표 박창규)는 친환경 타이어 ‘에코윙 S’가 업계 최초로 ‘탄소성적표지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단계 인증 제도이다. 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으로 산정해 1단계로 ‘탄소배출량 인증’을 한다. 이 가운데 4.24%이상 탄소배출량이 줄어든 제품에 ‘저탄소제품 인



증(2단계)을 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에코윙 S’는 연비 절감을 고려한 신기술을 적용했고 안전성도 견비한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이라고 금호타이어는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vpark@

## 컨테이너 물동량 한 달만에 감소세로

세계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 여파로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추정)이 186만8000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줄었다고 7일 밝혔다. 월별 물동량은 지난 8월에 34개월 만에 줄었다가 9월에 반등한 뒤 10월에 다시 감소했다.

수출입화물은 112만9000TEU로 작년 동기보다 3.9%, 연안화물은 2만

6000TEU로 34.1% 줄었다. 환적화물은 부산항의 물량 증가 덕분에 작년 10월보다 4.3% 늘어난 71만3000TEU로 나타났다.

항만별 물동량은 부산항이 142만3000TEU로 0.6% 증가했다. 특히 환적화물은 68만8000TEU로 6.1% 늘어났다. 그러나 광양항은 자동차와 석유화학 화물 감소로 6.6% 줄어든 17만4000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화물과 환적화물이 각각 0.6%, 26.6% 감소했다. /연합뉴스

## 중소기업 86% “법인세 인상 반대” 전국 300개사 설문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중소기업 300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6.3%가 정지권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반대 이유는 제품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45.2%)를 가장 많이 꼽았고, 투자 의욕 저하로 경제 성장에 부정 영향(39.8%),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13.1%) 등의 순이다. /연합뉴스

정치권은 최근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2%에서 25~30%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한상의는 “법인세 중심의 세수 확보는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세제개편 성과로는 법인세율 인하(62.7%), 세계지원 확대(12.3%),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제도 도입(11.7%), 이월결산금 공제 기간 연장(11%) 등을 들었다. /연합뉴스

|             |                   |
|-------------|-------------------|
| ▲ 코스피지수     | 1,937.55 (+9.38)  |
| ▲ 코스닥지수     | 518.45 (+0.92)    |
| 금리 (국고채 3년) | 2.78% (0.00)      |
| ▼ 원·달러 환율   | 1,085.40원 (-5.30) |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 한미금거래소

## 금맥을 캐내라!

금거래 비즈니스가맹점을 모집합니다.

한미금거래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귀금속 브랜드 골드스토어를 통해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장점)**

1.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
2. 전문지식이 없어도 1주 본사교육으로 창업가능
3. 자금 회전이 빠르고 안전
4. 지식경제부가 승인한 '조세특례범 106조 5항'에 의거 이익 창출
5. 지역 영업권을 확실하게 보장(계약서에 명시)

가맹 문의 **02)542-4611**

[www.hanmigold.co.kr](http://www.hanmigold.co.kr)

##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 무등산 문빈청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매가 벗겨진 묘, 동침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위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묘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청사

무등산 문빈청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청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